

“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 ”

< 마태복음 28장 10절 >

- 무더위가 마지막 기세를 떨치는 때입니다. 모두가 건강하게 여름을 지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건강을 위해 치료하시는 분들과 여행 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 여름공동체생활을 지난 주일까지 잘 마쳤습니다. 주일 오후에는 자유롭게 운동하고 교제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계획하고 준비한 교육공동체 실행 위원회와 더운 날씨에 점심, 다과, 오후 간식을 섬겨주신 분들에게 감사합니다. 물질의 나눔은 오늘까지로 마감합니다.

* 고마움을 표해야 할 분들

나눔의 식탁 : 김중필 · 이현숙 집사 가정 (아버지 생신 감사)
이충환 · 최연우 집사 가정 (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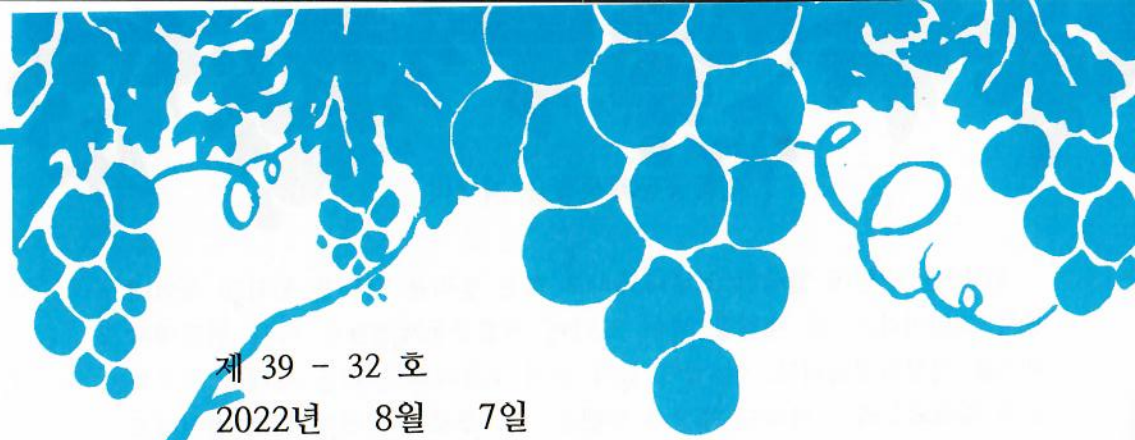
강단을 꽃으로 :

주일 교회 승합차 운행시간 오전 9시50분 의정부역 6번 출구 영풍문고 앞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사랑방공동체

11187 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무림길134-178
http://www.sarangbang.org 전화:(031)544-1615 FAX:(031)544-1618

역할공동체 : 생활공동체 예배공동체 교육공동체 사역공동체 선교공동체
선 교 지 : 타지키스탄 대만 일본 요르단 중국



제 39 - 32 호

2022년 8월 7일

사랑방공동체

TK2000

“코이노니아를 지향하는 새 천년”

(고린도후서 13 : 13)



주인이 거하는 방, 사람을 만나는 방, 뜻을 모으는 방입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을 지내며

2019년 12월에 발생한 코로나19라고 하는 놀라운 사태를 힘겹게 겪어내면서, 2년이라는 긴 세월을 넘어 드디어 여름공동체생활을 다시 현장에서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전에 코로나라고 하는 사태가 이토록 오래 지속되리라고 아무도 예상치 못했습니다. 코로나 덕분에 새로 발견하고 생각되어지는 일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일상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다시 깨닫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여름공동체생활은 일시적으로나마 공동생활을 경험해 보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 된 교회를 우리가 고백하고 실제로 이루고 있지만, 서로를 직접 만나고 경험해보지 않으면, 한 몸으로서 함께 어떻게 맞추어가야 하는지를 사실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문제는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있어 왔던 문제이기에, 사도바울은 성도들이 함께 연합의 삶을 살아가는 것에 대하여 에베소서와 고린도서를 비롯한 서신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주의 깊게 설명을 해 두었습니다.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한 몸으로 생활해 나갈 수 있는지 그리고 그리스도와 연합한 삶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를 절절한 심정으로 써 두었습니다. 아마도 초대교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또 각자의 은사가 다양하고 지금보다 보다 분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지금보다 교회에서 하나 된 삶을 이루어가는 것이 더욱 어려웠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연합의 삶을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해결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함께 같이 지내보는 것입니다. 함께 지내는 것이 부담스러울 수는 있지만, 한 공동체라는 고백을 하는 사람들끼리 생활을 같이 해보지 않고서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여름공동체생활은 한 해 생활표어인 '갈릴리로 가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라'는 주제로 평소와 다르게 조금 축소하여 진행을 했습니다. 금토 저녁시간을 활용하여 '코이노니아' 시간으로 보내었습니다. 먼저는 마음을 모으는 찬양을 박자와 속도를 맞추어서 함께 불렀습니다. 찬양을 하면 할

수록 소리와 호흡이 점차 하나가 되어가는 것을 모두가 함께 경험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구체적이며 쉽게 각자에게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을 보내고, 작은 소그룹으로 서로 말씀에 비추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진솔하게 나누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서로의 말을 경청하기 위해 의자를 한껏 당겨서 앉는 모습들이 곳곳에서 보였습니다. 서로의 나눔이 끝난 후에는 소그룹별로 나눔을 바탕으로 기도해 줄 사람을 선정하고 합심하여 시로 기도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특히 연령별사랑방이 정말 오랜만에 따로 공동체생활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꾸러기와 어린이는 함께 시간을 가졌는데, 더운 여름에 시원한 물놀이도 하고 자연예배당에서 이번 주제에 맞는 여러 활동들을 교역자 중심으로 준비하여 실행했습니다. 푸른꿈사랑방은 예전처럼 공동체에서 이틀 동안 함께 잠을 자면서, 저녁시간만 활용한 어른들과는 달리 이틀을 온전하게 공동체생활로 먹고 자면서 시간을 지냈습니다. 청소년기에 경험하는 공동체생활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아서, 특히나 유연하고 완전히 갖추어지지 않은 시기이므로 이때 공동체로 살아가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어른들보다 더욱 효과적이라 생각을 합니다. 코로나로 모이지 못했던 모임들이 하나씩 정상적으로 회복되는 모습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 거룩한 성찬식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삶을 살며, 한 몸 한 공동체임을 고백하는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완전하게 3박 4일로 여름공동체생활을 할 수는 없었지만, 이틀 저녁과 주일만으로도 그 감격은 충분했습니다. 이 일들을 위해서 보이지 않게 섬기는 많은 손길들이 있었습니다. 교육 실행위원회를 중심으로 생활 공동체 식구들과 사역 공동체 식구들의 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물질과 식사봉사로 자원하여 섬기신 분들, 맛있는 수박을 지원하고 익명으로 아이스크림을 지원한 손길들과 주일 오후 폭우를 피해서 실내에서 미니족구를 즐기는 어른들과 오랜만에 이야기 꽃을 피운 이들을 위해 백숙으로 섬긴 손길을 기억합니다. 비록 짧을 수 있는 이틀 오후와 주일이었지만 그 안에서 발견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음에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공동체생활이었습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정재훈 목사

한주간의 말씀

그 바람이 지나가고 난 뒤에 지진이 일었지만,
그 지진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지진이 지나가고 난 뒤에 불이 났지만,
그 불 속에도 주님께서 계시지 않았다.
그 불이 난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소리가 들렸다.
< 열왕기상 19장 12절 말씀 >

<수요기도회>

성경 : 신명기 22장

제목 : 생명과 공동체를 아끼시는 하나님

인도 : 권재만 목사

찬송 : 449 456 379 335 212

관찰]

- 1 ~ 4 잃어버린 형제의 소유물
- 5 ~ 12 의복과 생명에 대해
- 13 ~ 30 성 생활에 관한 법

해석]

1. 1~12 살인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이 확장되어 공동체와 생태계의 생명을 사랑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2. 13~30 간음하지 말라는 소극적 명령이 확대되어 "야다"가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서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라 명령하십니다.

적용]

1. 생명을 소중히 여깁시다.
2. 가정과 공동체를 잘 세워나갑시다.

고향 같은 사랑방에서 자내고 오니...

"어디서 자요?" 이번 여름공동체생활을 하면서 술하게 들은 말입니다. (너무 감사하게도 공동체 훨씬 이전부터 자기 집에 와서 묵으라고 요청해준 가정이 있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집에 묵도록 해준 집사님 이름을 많~이 알려야만 했습니다. "우리 집에서 자도 되는데..."라는 말을 해준 지체도 여럿~. 선뜻 집에 와서 자라는 말을 해주는 사람이 있는, 혹은 많은 삶은 참 괜찮은 삶 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니 맘이 참 푸근하고 감사했습니다. 사실 꽤 끼치는 것 좀 힘들어하는, 수더분하지 못한 성격의 제가 어려워하지 않고 넉살맞게 있어도 안심되는 곳, 그곳이 교회였고 공동체였습니다. 있고 있었는데 기억이 났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공동체생활을 하러 가며 함께 마음을 나누는 순간이 어렵지 않을까? 가능할까? 염려를 했습니다. 만 가지 생각을 하며 온 탓이죠. 가끔 예배드리러 와서 얼굴을 보았다고 해도 마음을 나누어 본 기억은 까마득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나누었다고 여겼지만, 멀어져 버린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고, '도대체 마음을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대체 무슨 소용이 있었을까'라는 회의에도 빠졌었지요. 마음을 나누는 것이 불편하거나 걱정스러운 것일 수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짧은 시간 속에서도 외면하고 싶었던 다른 지체들의 갖가지 마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심함을 돌이키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없으면 산을 옮길 믿음도 소용이 없다고 했는데... 무심함은 사랑이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믿음이 없었네요... 걱정스런 생각으로부터 놓여나기 위해 무심하려 했던 삶이 결코 저를 평안하게 해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기도를 회복하여 공동체 때 마음에 담아 주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부부는 올해로 3년째 공주에 살고 있습니다. 몸도 마음도 멀어져 있었습니다. 현장 예배가 열렸지만, 저희는 자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합니다. 소속이 불분명해 보이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신앙생활을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을까 걱정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방에 가면 고향처럼 반겨주는 사람이 많고 제가 기도해 드릴 사람, 저를 위해 기도해주는 분도 많습니다. 그 생각을 담고 공주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떠날 때와는 다른 맘으로 돌아왔습니다^^

주일공동예배

오전11시

인도자 : 권재만 목사
설교자 : 권재만 목사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

- 초청의 말씀
- * 예배의 찬송
- * 기원의 기도
- * 기원찬송

마태복음 11 : 28-30 인도자
43 다함께
영광 영광 인도자
다함께

죄의 고백과 용서

- * 참회의 기도
- * 용서의 말씀
- * 신앙고백
- 고백의 찬송
- 공동기도
- 목회기도

히브리서 10 : 12,14 인도자
478 다함께
다함께
다함께
인도자

하나님의 뜻과 말씀선포

- 성경낭독
- 성가대 찬양
- 설 교

열왕기상 19 : 3-18 설교자
310 사랑방
“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 권재만 목사

의탁과 섬김의 삶

- 의탁의 기도
- 응답의 찬송
- * 봉헌기도
- * 영광찬송
- * 위탁의 말씀
- * 강복기도

설교자
419 다함께
인도자
516(1) 다함께
설교자
설교자

* 표는 일어서서 예배를 드립니다.

† 헌금은 들어오실 때 헌금함에 자유롭게 하십시오.

예배를 돕는 이들 안내 : 양기모 이명호 / 봉헌위원 : 장미숙 / 꽃꽂이 : 김영화
반주 : 김영희 이근자 정다운 박민정 임은숙 안지운
서진술 석지인 옥대철

공동기도문

저희에게 안식을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상을 떠나 참된 쉼의 시간을 가지려 하오니
아버지께서 저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엘리야는 먹고 보고 들었습니다. 엘리야는 자신이 생각지도 못한 결과로 인해 자신이 있던 곳에서 멀리 떨어져 쉬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천사가 주는 음식을 먹고 여행하며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엘리야에게 바람, 지진, 불의 풍경 뒤에 부드럽고 조용한 목소리로 말씀하십니다. 질문과 대답을 통해 엘리야의 생각을 변화시켜 주시고 새 힘을 얻도록 하셨습니다.

엘리야는 일상에서 벗어났습니다. 엘리야는 일상을 떠나 새로운 장소에 갑니다. 그곳에서 먹고 처음 이스라엘을 부르신 장소까지 갑니다.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연의 역동적인 변화를 보여주신 후, 자신의 일에 데려있던 엘리야의 시선을 바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판을 보여 주십니다. 이를 통해 엘리야에게는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 나아갈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할 일을 잘 해낼 수 있게 변화되었습니다.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우리의 쉼은 엘리야의 쉼과 같아야 합니다. 새로운 장소에서 맛있는 것을 먹고 자연을 누리는 것을 넘어 하나님의 뜻과 부르심을 깨달아 생각이 바뀌고 힘을 얻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물리적으로나 의식적으로 일상에서 떨어져 여행의 참된 쉼을 누리십시오. 다양한 음악과 도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참된 쉼을 누리는 사랑방 식구들 됩시다.

수요기도회 / 저녁 7시 30분 / 인도 : 권재만 목사 / 기도 : 김영동 집사

< 사랑방공동체학교 소식 : 어린이학교 >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이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이하은 아빠 이재원입니다. 선생님께 사랑방공동체 소식지에 실릴 글 부탁을 받고 이제 3년차로 접어들고 있는 하은이의 어린이학교 생활을 되돌아보고 추억하며 이 글을 써보려 합니다.

때는 19년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저희는 하은이의 초등학교 입학을 앞두고 답답한 서울을 벗어나 양주로 이사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하은이의 학교였고 여러 곳을 염두 해두고 알아봤지만 만족스러운 곳을 찾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정말 우연치 않게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어린이학교를 알게 되었고 직접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나서 저희가 고민하던 모든 것들이 퍼즐 맞추어지듯 완성되었습니다. 평소 답답한 서울에서 생활하며 하은이만큼은 자연 속에서 잘 놀게 해줘야겠다는 생각으로 매일 산속 숲에 가서 여러 가지 숲 활동을 하는 숲 유치원을 보냈습니다. 저희 부부는 하은이를 자연과 접한 초등학교에서 생활 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해달라고 막연히 기도하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상상하고 기도했던 곳 이상인 어린이학교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직도 어린이학교 첫 방문 때의 놀라움이 잊혀지지 않습니다. 학교에 도착한 저와 하은이는 네모반듯한 학교 건물이 보이지 않아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학교가 어디냐고 계속 물어봤던 기억이 납니다. 어린이학교 방문 후, 학교는 교실과 건물이라고만 생각했던 저의 좁은 생각이 깨지고 학교라는 공간에 대해서 새롭게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학교가 정해지자 집도 인도해주셨습니다. 양주에 하은이 통학차량이 운행하는 곳에 집이 없어 걱정하고 있었는데 마침 저희가 부동산에 방문한 날 계약이 취소된 집이 하나 있었고 예약자가 있었지만 점심을 먹고 오느라 우리보다 늦어서 마침내 저희가 계약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하은이의 어린이학교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은이의 1~2학년 때를 생각해보면 약간 긴장한 상태로 학교에 대한 탐색의 시간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유치원에서도 불임성이 좋아 관계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았는데, 또래 뿐 아니라 선배들이 함께 생활하는 학교생활이

쉽지는 않았나봅니다. 예배로 한주를 시작하고 공부와 놀이 속에서 관계를 배우며 무엇이든 서투른 시기이지만 선생님과 선배들의 도움으로 잘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이학교의 장점은 단순히 교육 뿐 아니라 양육까지 학교 선생님들과 학부모들이 함께 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것은 시간을 그 사람을 위해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이학교에서는 부모님들이 매주 스케줄대로 돌아가며 아이들의 등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들 바쁘시지만 주 단위로 은행 스케줄을 짜주시고 사정이 있으면 서로 먼저 배려해 주시는 모습을 보며 아이들에게 이 또한 교육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등교시간에 아이들과 이야기하며 학교의 일정, 특별한 일들을 물어보고 아이들의 관심사에 귀 기울이며 저도 그들의 트렌드에 대해 열심히 공부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일주일 중 가장 기다려지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학기말에 선생님들과의 상담시간은 하은이의 학교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수고했다 격려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평상시에 저희부부가 잘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알게 되고 교육에 대해서 고민하며 하은이를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회의 외에는 학부모 참여가 제한되어 있지만 설거지 봉사 등이 가능한 시기가 되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교와 아이들에 대해서 더 알아가기를 희망합니다.

올해 구정 가정예배 때 하은이의 기도제목 3가지 중 2개는 어린이학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다리가 아프신 선생님을 위한 기도, 자기보다 어린 동생들을 잘 돌볼 수 있도록 기도해달라는 말에 하은이에게 이미 어린이학교가 삶의 중요한 일부분이 되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아직도 가끔씩 아니 종종 맞춤법도 틀리고 곱셈 나눗셈에도 서툴지만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높은 텐션을 유지하고 있으며 그 모습이 매우 사랑스럽습니다. 또한 느리더라도 진심을 담고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속도보다는 진심을 강조하시는 어린이학교의 영향인 것 같습니다. 하은이의 지금이 모습이 사랑스럽지만 또한 새로운 모습도 기대됩니다. 하은이의 삶이라는 큰 그림을 함께 그려주고 계시는 어린이학교와 선생님들께 감사드리고 저도 조급한 마음보다는 느긋한 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어린이학교와 학생들을 위해 중보하겠습니다.

함께 세워나가는 땅 위의 하늘나라

생활공동체 원들은 공동체생활 전에 공동체 주변 정리를 함께 했었습니다. 각자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들을 해 나갔습니다. 오랜 세월 의자에 쌓여있던 먼지도 털어내고 물로 깨끗이 씻으니 얼마나 개운한지 모릅니다. 여기저기 나 있는 풀들도 뽑고 가지도 치고 나니 정돈된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오랫동안 쌓여있던 폐자재도 차로 실어 날랐습니다. 폐목을 나르는데 처음엔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몰라 난감했지만 나무를 하나씩 나르니 조금씩 없어졌고 결국 손이 갈 때마다 바뀌는 풍경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더욱 즐겁게 만들어 줍니다. 이 폐목을 실고 처리장으로 오가며 나눠지는 먹을거리와 이야깃거리로 더욱 친밀해졌고 무엇보다 그 속에 더욱 깊이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했습니다. 자원하는 마음, 그리고 서로를 섬기는 마음으로 이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곳이 몇이나 있을까요? 땅위의 하늘나라를 꿈꾸기에 가능한 것 같습니다.

공동체는 지금 휴가 기간입니다.

각자가 쉬는 시간을 보내는 이 시간, 공동체는 물까지가 주인행세를 하며 적막한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오가며 누구든 만나면 더욱 아는 채를 하게 됩니다.

지난번 공동체에 손님이 왔을 때, 분주하게 일을 하다 쉬는 시간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바쁘게 일하니 오히려 더 즐겁네요~”

함께 하니 더 즐거운 것이겠죠? 너무 조용한 이곳이 어색하지만 다시 모여 즐겁게 보낼 시간이 기대가 됩니다

디아코니아사랑방 권재만 목사

<수요 정오기도회>

말 씬 : 사도행전 10장 34-36절

인 도 : 최기찬 전도사

기 도 :

1. 세계평화와 선교를 위한 기도 <우크라이나 피난민을 위해>

유엔난민기구 통계에 따르면 개전일인 2월 24일 이후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수는 현지시간 1일 현재 천17만800명을 넘긴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전쟁 이후 우크라이나 피난민 수는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유엔은 이번 사태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최악의 난민 위기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교회 갱신과 공동체를 위한 기도 <한국의 공동체들을 위해>

- 1) 무더운 여름 휴식 가운데 힘을 얻을 수 있도록
- 2) 코로나 팬데믹 이후 어려운 상황 잘 이겨나가도록
- 3) 신앙의 본질을 잃지 않도록

3. 지역사회와 우리 공동체를 위한 기도

- 1) 지도력 훈련과 여름공동체생활 후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 2) 아프신 분들과 더위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 생활공동체 소식 >

생활공동체 식구들은 손님맞이와 공동체지도력훈련, 여름공동체생활이라는 큰 일들을 잘 감당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역시 사랑방은 사람들을 섬기는 곳이며 사랑을 함께 나누는 곳을 다시 한번 가슴 깊이 느끼고 알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그간 공동체의 여러 곳에서 애쓴 식구들은 휴식의 시간을 가지며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체력의 회복과 마음의 쉼을 가지고 있습니다. 쉬면서도 당직을 정해 공동체를 지키며 손님맞이를 비롯한 사무실 업무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멀리 고향에 가거나 외부로 여행을 간 공동식구들이 무사히 모두 잘 복귀하기를 바랍니다. 발 작물과 공동체 일로 길게 외출하지 못하는 식구들에게 특별히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 장영미 전도사 >